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룸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룸

(1)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

성경: 갈 2:20, 엡 2:15, 4:24, 3:17상, 골 3:10-11, 빌 1:21상

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갈 2:20, 엡 3:17상.

- A. 새사람을 위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엡 2:15, 3:17상.
1.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과 새사람의 인격 모두이다 — 골 3:4, 엡 3:17상.
 2. 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입지가 없다. 우리는 모두 새사람 안에서 어떤 입지도 없는데, 이것은 새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골 3:10-11.
 3.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한 인격이 있다 — 골 1:27, 엡 3:17상.
 4.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가이다 — 요 6:57하, 빌 1:21상, 골 3:4, 엡 3:17상.
 5.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 a.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분명히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것이다 — 요일 5:11-12, 골 3:4.
 - b.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 골 2:19, 엡 4:13-16.
 - c.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새사람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 엡 4:13.
- B. 우리가 특별히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생활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새사람의 생활이 될 것이다 — 요 4:34, 5:30, 6:38, 17:4, 롬 15:32, 약 4:13-15.
1.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 롬 15:32.
 2.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 생활의 어느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 몬 14.
 - a. 일단 우리가 한 새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본다면, 단지 우리 스스로 일들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 b. 우리는 새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생활은 우리 개인의 결정과 생활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단체적인 새사람의 결정과 생활이어야 한다.
 - c. 새사람의 생활은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단체적인 결정이지 우리 개인의 결정이 아니다 — 고전 4:19.
 3.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본이다 — 딤후전 1:16, 갈 1:15상, 16상, 2:20, 4:19, 엡 3:17상, 빌 1:8, 2:5, 고후 2:10.

- C. 한 새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는 말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마 12:34-37, 엡 3:17상, 요 7:16-18, 8:28, 38상, 12:49-50, 14:10.
1. 한 새사람 안에는 같은 것을 말하는 하나의 입이 있다 — 롬 15:6, 고전 1:10.
 2.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을, 로마서 15장 6절에 나오는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a. 오직 한 새사람이 있고 한 새사람에게는 오직 한 인격만 있기 때문에, 한 새사람은 한 입으로 말하며 같은 것을 말한다.
 - b. ‘한마음 한뜻으로’와 ‘한 입으로’(롬 15:6)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다 — 고전 1:10.
 - (1) 교회는 오직 한 인격 곧 그리스도만을 가진 한 새사람이며, 이 인격은 우리의 말을 통제한다.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분명히 ‘같은 것’이다.
 - (2) 우리가 말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면, 한 입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 c. 한 새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격으로 계시고,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를 가지신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다 — 마 17:5.
 3.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이고 여러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만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 엡 2:15, 4:22-24, 3:17상, 롬 15:6, 고전 1:10.

II.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 갈 2:20, 빌 1:21상.

- A.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 곧 하나님-사람이 되었다 — 눅 1:35, 요 1:14, 마 1:18, 20-23.
- B.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사람에 대해 말한다. 이 하나님-사람께서 오늘날 하나님-사람들이 되셨다 — 롬 1:3-4, 8:29.
 1.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한 원형이시다(벧전 2:21). 많은 하나님-사람들은 그분의 재생산이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롬 8:3)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셨고, 그 결과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셨다(29절, 히 2:10). 이 새로운 종류가 하나님-사람 종류이다.
 3.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種)에 속하는 하나님-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요 1:12-13.
- C. 한 새사람은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다 — 엡 2:15, 4:24, 골 3:10-11.
 1.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은 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머리이시고, 많은 하나님-사람들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몸이다 — 롬 8:29, 골 1:18, 2:19.
 2.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인 하나님-사람들이 새사람을 구성한다 — 엡 5:1, 4:24.
 - a. 한 새사람은 단체적인 사람이며, 이 단체적인 새사람은 모든 하나님-사람들의 총체이다 — 엡 2:15.

- b.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셨고(롬 8:29, 히 2:11), 이 많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며, 사람이자 하나님인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다.
- D.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인 한 새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 빌 1:19-21상, 3:10.
1.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삶으로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한 것이었다 — 요 6:57상, 14:10.
 - a.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채워지고, 신성한 속성들과 연합되고, 신성한 속성들로 적셔졌다 — 눅 1:26-35, 7:11-17, 10:25-37, 19:1-10.
 - b.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부터, 그분을 통해 하신 것이었다 — 요 14:10-11.
 2.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확장 증가와 재생산과 연장인 우리는 그분께서 사신 생활과 동일한 종류의 생활을 해야 한다 — 요일 2:6.
 - a. 주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은 우리의 하나님-사람 생활을 위한 본을 세웠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는 생활을 사는 것이다 — 갈 2:20.
 - b.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신 이분은 이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신다. 우리는 이분 이외의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우거나 우리를 점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 고후 3:17, 13:5, 엡 3:16-19.
 3.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 빌 3:8, 10.
 4.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사람은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한다 — 갈 2:20, 빌 1:19-21상.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그리스도의 인격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삶

에베소서 1장에 따라 우리의 영을 접촉할 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3장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따라 살 때에만 가능하다. 3장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의 기관만이 아니다. 거듭난 후 우리의 영은 속사람으로 변한다(16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격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다 기관이었다. 몸은 외적인 기관이고 영은 안에 있는 죽은 기관이었다(엡 2:5). 따라서 우리의 인격은 우리 혼과 관계된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우리의 혼이다. 우리가 거듭난 후 주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은 더 이상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이제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다. 혼이 한 사람이고 영이 또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속은 복잡하게 변했는데, 속에서 두 사람이 늘 충돌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우리의 인격인 그 혼을 십자가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 곧 인격인 그 혼을 반드시 십자가에 두며 십자가에서 끝내야 한다(롬 6:6).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십자가에 머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혼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영 또한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고 오히려 혼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한다(엡 3:16).

교회는 한 새사람임

우리는 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지만 교회가 한 ‘사람’이라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새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한 새사람은 16절에 근거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한 새사람이며 이 새사람 안에 있는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 안에서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지체들이다. 나도 하나의 지체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지체이며 우리 모두가 지체들이다. 우리가 연합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며 이 몸은 곧 한 사람이다. 가령 오늘 우리 가운데 오천 명이 있다면 우리는 무리들인가 아니면 한 사람인가?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인수는 많지만 누구도 교회의 인격이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교회의 인격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생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에 있는 생명은 생각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을 다스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 생각이 새롭게 되면 새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 새사람이 바로 교회이다(엡 4:23-24). 이때가 되면 우리는 낡은 사회생활을 벗고 완전히 교회 안에서 살게 된다. 교회는 바로 한 새사람이므로 당신이 완전히 교회를 입는다면 이때 교회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고 성숙하며 풍성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 목표에 도달하시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한 새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과 교회의 하나

교회는 하나의 기관만이 아니고 하나의 그릇만도 아니며 하나의 몸만도 아니다. 교회는 바로 한 사람이다. 교회라는 이 사람은 한 새사람이며, 이 새사람은 흩어진 개인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사람은 단체적인 큰 사람이다. 이 단체적인 큰 사람은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사람이다.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다만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체험하거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체험해야만 한다. 교회의 이 체험은 우리 개인들의 체험에 근거하며 만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했다면,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참된 하나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격으로 취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취하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 결과이다. 그럴 때 모든 교회에 하나가 있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넘치는 한 가지 확신은 지방 교회가 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어느 날이 되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할 것이다.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임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보좌에 오르시도록 하는 것이나 그분을 왕으로 삼는 것 혹은 머리가 되시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낡은 교리일 뿐이다. 많은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은 머리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듣고서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분의 갈망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므로 저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인격을 거절하고 당신을 저의 인격으로 취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백화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도 가지겠습니까? 당신이 가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들을 볼 때 당신은 다시 “주님, 주님은 이 물건을 좋아하십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면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주님, 제가 이 옷을 사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 옷을 입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이 옷을 살 것이고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주님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교회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함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고 측량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실로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너비와 우주의 길이이시고, 우주의 높이와 우주의 깊이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이다. 이 새사람은 교회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옷으로 입고 실질적으로 교회생활을 할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은 내가 이전에 참여했던 사회생활과 같은 사교 생활을 벗어 버리는 것이며, 새사람을 입는 것은 교회를 입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다(엡 4:22, 24).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도달하기 원하시는 목표이다. 주님이 우리를 공혹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더욱 그분의 인격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원래 주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셨지만, 지금 주님의 이 영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확장되신다. 이 영은 생각에까지 확장되어 생각의 영이 되신다(23절). 이렇게 새롭게 된 생각의 영 안에서 우리는 옛날의 사회생활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인 교회생활을 입는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가장 달콤한 체험임

우리는 그 영께서 다만 능력만이 아니고 한 가지 속성만도 아니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분은 거룩함만도 아니고 생명만도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한 인격으로 사신다.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이 일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섬세한 것이며 더욱 가장 달콤한 것이다. 주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것은 가장 깊은 체험이며, 가장 완전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체험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성질이나 나의 애호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인격을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능력 혹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곧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빌 1:21)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다.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할 때 비로소 교회생활이 있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고, 우리가 더 전진한다면 주님은 그분을 인격으로 취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가 되어야 새사람인 교회가 나타난다. 교회는 오늘날 하나의 기관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몸일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한 새사람이다. 이 새사람 안에 있는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이 인격 안에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런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체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교회가 몸이라는 인식을 가질 뿐 아니라, 한 발 더 전진하여 교회가 한 새사람이고 주님은 이 한 새사람의 인격이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수 있고(엡 3:17),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며,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달콤하여 지식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18-19절). 그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게 된다(4:22-24). 이 새사람은 바로 교회생활이다.

나는 주님의 영께서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는다.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빛을 보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새사람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의 원래의 인격이 완전히 부인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상). 이것이 바로 새사람이며, 새사람의 생활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함, 18-25, 69-74, 114, 119, 137-138쪽)*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따라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함

우리는 그러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본 바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실행은 성공할 것이며 그러한 성공은 새로운 부흥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부흥은 최고의 부흥이며 아마도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의 마지막 부흥일 것이다. 이전 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본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몇몇 개인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체적인 본인 한 몸, 곧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실행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그분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으며 매일 다른 한 분의 생명을 삶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빌 3:10, 1:21, 갈 2:20). 우리의 생명과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그분에 의해 십자가로 이끌려졌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죽음의 틀에 맞추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부활이신 그분을 저절로 살게 할 것이다(요 11:25). 이것이 하나님-사람의 생활이다.

이것이 마땅히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실행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실행은 다만 모든 것이 성경에 따른 교회생활, 곧 절대적으로 성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파를 버리고 머리 덮는 것을 실행하고 주님의 상을 갖는 교회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실행들로 인해 회복 안으로 들어왔

다. 그들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 집회들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식을 귀히 여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실행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실행의 목표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다.

우리의 실행은 어떤 종류의 타고난 사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행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그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다. 결국 이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사람이다. 오늘날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이 생활은 부활에 의해, 부활 안에서, 부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활이다(갈 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며 그 결과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요 14:19).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산다. 우리 둘은 연합의 방식으로,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방식으로 함께 산다.

최상의 가정생활과 결혼 생활과 사회생활은 그러한 생활에서 나온다. 이 생활이 교회생활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삼십삼 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크고 작은 일들에서 구원한다.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그러한 생활은 우리를 별거와 이혼에서 구원한다. 교회생활에서 그러한 생활은 우리를 의견과 분열과 멸시와 판단과 불평에서 구원한다. 그러한 생활에는 판단도 없고 멸시하는 것도 없고 편애도 없고 분열도 없고 불화도 없으며 의견도 없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한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하며, 모든 것이 신성하다. 즉 모든 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분열이 있는 곳마다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함과 자기를 높임이 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없다면 어떤 분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사람 생활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빌 1:21).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내 부담이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장로들이나 일반 성도나, 이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신실한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단지 개인의 본이 아닌 한 무리의 본을 얻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의 기독교에 보여 주실 필요가 있는 본, 곧 그분의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본이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하러 나가게 될 것이다. 활력 그룹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그룹이다. 활력 그룹은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서 실행되어져서는 안 된다. 활력 그룹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어야 한다.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 주며 지방 교회들을 건축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들은 바를 실행한다면, 저절로 본이 세워질 것이다. 이 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부흥이 주님을 다시 모셔 오리라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나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산 말씀을 기도로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영을 꺼뜨리지 않고 신언을 멸시하지 않음을 통해 그분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신실히 실행할 것을 격려하고 싶다. 이러한 생명의 실행들에 의해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63-66쪽)